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y 2024 Issue | Vol. 39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의 가장 흥미로운 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 세계경제포럼(WEF)
— page 1-2
- 한국, 중국,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대화 재개 — page 2-3
- 제1분기 국내무역의 양과 가치 상승 — page 4
- 올해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9%로 예상됨 — page 4-5
- JFC, 공항 정책 프레임워크 혁신을 위한 법안 제안 — page 5
-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 page 6-7

KCCP ACTIVITY HIGHLIGHTS

- 2024 아시아 플랫 | 아시아 태평양 상공회의소 (APCAC) — page 7
- 제 6회 ARTA 상태 발표 — page 8

필리핀의 가장 흥미로운 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 세계경제포럼(WEF)

May 27, 2024 | Beatriz Marie D. Cruz | BusinessWorld

필리핀은 정부가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완화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미래에 글로벌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세계경제포럼(WEF)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가장 흥미로운 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있을 것이라는 매우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WEF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젠다 책임자인 주옥 리(Joo-ok Lee)가 지난주 비즈니스월드 경제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에 대한 민간 부문과 투자자들의 "강력한"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기 및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 나라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제, 인구 배당,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규제 개혁 및 변화 등 필리핀이 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는 한, 주요 부문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함께 공공-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필리핀은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플레이어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올해 정부가 6-7%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Philippine economy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fastest-growing economies in the region this year.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는 필리핀이 다음 10년 내에 2조 달러(약 116조 페소) 경제로 성장할 수 있다고 3월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전망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초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은 특히 필리핀의 상황에서 몇 가지 위협을 제기합니다. 당신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이 씨는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 중국과 "전략적 균형과 지속적인 건설적 관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방 경제를 유지하고, 회복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한슬리 A. 훌리아노(Hansley A. Juliano)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리핀은 일본과 호주와 같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일본과 호주)이 우리의 무역 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거나 필리핀 내 중국 경제 활동을 잠재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에서 말했습니다. [Cont. page 2]

필리핀의 가장 흥미로운 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 세계경제포럼(WEF)

[Cont. from page 1]

한편, WEF의 이 씨는 1987년 헌법의 경제 제한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소유권을 허용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일부 규제는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지분을 가지는 데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3월에 하원은 1987년 필리핀 헌법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철폐하는 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제안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아직 계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재의 착취적 기관을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기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라고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레오나르도 A. 란조나(Leonardo A. Lanzona)가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에서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5/27/597447/most-exciting-chapter-for-phl-yet-to-come-wef/>

한국, 중국,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대화 재개

May 27, 2024 | By: Kim Arin - @inquirerdotnet | The Korea Herald/Asia News Network

INQUIRER.NET

서울 - 한국과 중국은 일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밝혀 내는 바에 따르면 외교 및 안보를 위한 의사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확장된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6월 중순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외교 및 안보에 대한 새로운 고위급 대화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국가 간 거래를 상품뿐만 아니라 문화 및 관광과 같은 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한 윤 대표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요일 오후 서울에서 일본 총리 키시다 후미오와 중국 총리 리장과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이는 다음 날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의 전야입니다. 월요일의 삼자 정상회담은 4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은 최초의 삼자 정상회담입니다.

리장과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지속하면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영구 회원으로서 중국이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중국 총리와의 두 번째 회의에서 "두 나라가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밀접히 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지난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제43차 정상회의였습니다.

"최근 두 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재개된 장관급 대화와 지방 정부 간 교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를 희망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두 나라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이 "막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소통’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은 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세계적인 복잡성에 직면하여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바랍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리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인사를 전하면서 한국 대통령의 공동 이해관계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번 자카르타에서 당신과 만났을 때, 당신은 건강하고 좋은 중한 관계가 우리 두 나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Cont. page 3]

한국, 중국,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대화 재개*[Cont. from page 2]*

"중국과 한국 간의 30년간의 외교적 결합은 우리 양국 간의 양자 관계가 경제와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한 발전을 이루고 풍부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 두 나라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리는 특히 한국에 대한 처음의 방문으로서 3월 지난해 "베이징의 번호 2"로 취임한 이후 첫 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임자였던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당시 한국 대통령 박근혜와 다섯 번째로 만난 2015년 10월 이후로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한 중국 총리입니다.

키시다와의 정상회담이 즉시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더 개인적이었으며, 일본 총리와 자신을 최소한 두 번 언급하여 "우리 둘"로 표현했습니다.

"키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두 분이 약 한 해 동안 한국과 일본을 각각 두 번씩 여행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에서 키시다를 만나게 된 것에 "특히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수준의 교류가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 3월 도쿄에서 우리 둘 사이에 합의된 대로 모든 정부간 협정이 복원되었으며, 지난 7월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금융, 산업 및 기술 분야의 교류

"올해 우리는 금융, 산업 및 고급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올해 첫 분기에 한국과 일본 간에 약 300만 명이 이동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사람 간 교류 수준이 2018년에 본 기록인 1,05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간 관계 개선의 결과가 차츰차츰 쌓이고 있는 것에 매우 기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년에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그 해에, 우리가 양국 간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역사적 이정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총리와 함께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키시다의 한국 정부와 윤 대통령이 삼자 정상회담을 주선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지난 일년 동안 두 나라 간에 진행된 활발한 교류를 언급했습니다.

"일년 전에 일본 대행 총리로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에 나는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나는 이 신선한 봄철에 서울을 방문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은 우리의 직접 대화가 10번째입니다."

일본 총리는 자신이 "대통령과의 대화, 전화통화를 통해 계속해서 밀접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 간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이 한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두 나라 정부가 "양국 간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키시다의 국제 공동체가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고 말하며 두 나라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효과적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교류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60940/south-korea-china-to-resume-talks-on-free-trade-agreement>

제1분기 국내무역의 양과 가치 상승

May 24, 2024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필리핀 통계청(PSA)이 말했습니다. 올해 첫 분기 국내무역의 총량과 가치가 두 자릿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PSA는 해당 기간 동안의 국내무역 총량이 7.73백만 톤에 달하여 작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PSA는 거의 모든 상품이 수송 수단으로서 물을 통해 거래되었으며, 나머지는 2024년 첫 분기에는 공기로 거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품 부문별로, 식품 및 실생물이 2024년 첫 분기 국내무역의 양 측면에서 선도했습니다. 총 국내무역의 44.7%에 해당하는 3.46백만 톤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광물 연료, 운할유 및 관련 재료 및 기계 및 운송 장비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서부 비사야가 국내무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상품을 기록했습니다. 총 국내무역의 39.5%에 해당하는 3.05백만 톤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센트럴 루손과 센트럴 비사야입니다.

반면에, 국내무역의 총 가치는 또한 2023년에 비해 46.7% 증가하여 3894.2억 필리핀 페소에서 2655.1억 필리핀 페소로 증가했습니다.

"가치 측면에서, 국내에서 유입된 상품 중 대부분(99.96%)은 물(연안)을 통해 거래되었으며, 나머지는 2024년 첫 분기에는 공기를 통해 거래되었습니다,"라고 PSA가 말했습니다.

식품 및 실생물이 2024년 첫 분기 국내무역 가치에서 PHP2250.8억으로 상품 거래 가치의 57.8%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계 및 운송 장비가 PHP7397억, 주로 재료별로 분류된 제조 상품이 PHP3029억이었습니다.

서부 비사야는 PHP2233.3억에 달하는 교역 상품의 가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PSA는 수도권이 국내무역의 최고 순수입 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첫 분기 국내무역의 총 순수입 가치의 41.1%에 해당하는 PHP1601.3억입니다.

"순수입이란 특정 지역이나 주에서 다른 지역이나 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라고 PSA가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25464](https://www.pna.gov.ph/articles/1225464)

올해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9%로 예상됨

May 26, 2024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A drone shot captures the picturesque view of Laguna Lake in the background of the Ortigas Business District on March 28, 2024.

STAR / Michael Varcas

필리핀 마닐라 -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는 올해 필리핀의 적자 대 국내총생산 (GDP) 비율이 5.9%로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의 6.2%보다는 좁지만, 이 예측은 여전히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MTFF) 하에서 정부의 목표를 초과하는데, 이는 지난 3월에 5.1%에서 5.6%로 수정되었습니다.

"'더 나은 건설 더 많이' 프로그램 아래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출 우선순위 때문에 MTFF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노무라는 보고서에서 말했습니다.

재무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는 4월에 427억 필리핀 페소의 예산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의 668억 필리핀 페소에 비해 36% 줄었습니다.

정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로, 1월에 기록한 880억 필리핀 페소의 기록적인 흑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4월은 일반적으로 흑자가 나오는 시기이지만, 연말 소득세 신고 후에도 낮은 연간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작년보다 낮습니다. [Cont. page 5]

올해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9%로 예상됨

[Cont. from page 4]

여전히 예산 흑자는 정부가 주어진 시간 동안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된 돈은 부채 상환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노무라에 따르면, 4월 재정 적자 데이터는 수입 증가와 지출 증가로 인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4월에 총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372억 필리핀 페소로, 정부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4945억 필리핀 페소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가세 할당액과 국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증가, 그리고 코코넛 농민 산업 신탁 기금 자본화의 4차 조달의 증가로 인해 이뤄졌습니다.

"이는 지난 몇 달간 변동적인 인프라 진행 후 증가하는 자본 지출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12개월 롤링 합계로 볼 때, 재정 적자는 GDP의 6.1%로, 지난 달과 변함없이 동일합니다,"라고 노무라는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부는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299억 필리핀 페소의 더 높은 예산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5/26/2357873/deficit-gdp-ratio-seen-59-percent-year](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5/26/2357873/deficit-gdp-ratio-seen-59-percent-year)

JFC, 공항 정책 프레임워크 혁신을 위한 법안 제안

May 28, 2024 | Lorenz S. Marasigan | BusinessMirror

외국공동상의(JFC)는 월요일에 입법자들에게 필리핀의 공항의 지배 구조를 혁신하는 핵심 법안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JFC에 따르면, 전국의 국내 및 국제 공항의 안전,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세 가지 긴급 개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입법 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민항기공국 법안의 개정; 필리핀 공항 관리 기관의 설립; 그리고 필리핀 교통 안전 위원회의 설립.

"이러한 개혁은 필리핀의 국내 및 국제 공항의 안전, 효율성 및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라고 JFC가 필리핀 상원에 보낸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Caap 법의 제안된 개정안은 인적 자원 개발을 개선하고 이사회를 강화하며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시켜 통항 지도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리핀 공항 관리 기관의 설립은 공항 감독 기관 및 운영자로서의 Caap의 상충되는 역할을 해소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교통 안전 위원회의 설립은 사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JFC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인한 많은 항공편 지연 등과 같은 사건들을 인용하여 이러한 입법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전기 정전, 혼잡 및 위생 문제와 같은 Naia에서의 기타 불행한 사건들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및 운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에서 3,000개 이상의 회원 기업과 1,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및 3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대표하는 JFC는 이러한 개혁이 국가의 항공 부문에 상당한 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합체에는 미국,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일본 및 한국 상공회의소와 Pamur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JFC는 필리핀과 우리가 대표하는 국가들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개방적인 국제 무역, 증가하는 외국 투자 및 업무 조건 개선을 지지하고 촉진합니다,"라고 JFC가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5/28/jfc-pitches-bills-overhauling-airports-policy-framework/](https://businessmirror.com.ph/2024/05/28/jfc-pitches-bills-overhauling-airports-policy-framework/)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May 28, 2024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인플레이션은 이번 달 목표치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 관계자들이 중앙은행의 더 건영적인 이자율 인하 전망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필리핀 경제 브리핑에서 발언한 재무장관 랄프 렉토와 사회경제 기획장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4.0% 범위 내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리사칸은 "그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전에 잘못된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놀라운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렉토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미친 쌀 인플레이션이 생산량 증가와 관세 인하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번 달 목표치를 넘을 수 있지만 그 후로는 하락할 것으로 BSP 지속적인 이자 정책 완화가 8월부터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BSP의 통화정책 위원회는 이번 달 초기에 주요 이자율을 동결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여전히 상승 편향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해의 위험 조정 및 기준 예측은 각각 4.0% 및 3.8%에서 3.8% 및 3.5%로 낮추었습니다.

2025년의 경우 3.5%에서 3.7%로, 3.2%에서 3.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BSP가 조사한 경제학자들도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낮추었으며, 올해 최대 150 기저포인트(bps)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SP의 외부 예측가들을 대상으로 한 5월 조사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최신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이번 해의 평균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3.7%로 발표했으며, 이는 4월의 3.8%에서 낮아진 수치입니다.

한편, 2025년의 평균 예상치는 변함없이 3.5%이지만, 2026년에는 3.4%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통화정책 설정은 상반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다수의 분석가들은 이것이 제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7월부터 9월까지 25 기저포인트의 인하를 예상하며, "2024년 말까지, BSP는 정책금리를 25에서 150 bps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중앙은행은 말했습니다.

"2025년에는 BSP가 정책 입장을 더욱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범위는 25에서 250 bps입니다. 2026년에는 분석가들이 정책금리를 약 50에서 150 bps로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2007년 이후 최고치인 6.5%로, 2022년 5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함에 따라 450 기저포인트의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BSP의 통화정책 위원회 구성원인 랄프 렉토는 필리핀 경제 브리핑에서 내년까지 총 150 bps의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올해 이자율 인하가 있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이자율 인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자율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레몰로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8월에 조기 완화를 언급하여 폐소의 폭락을 야기시켰습니다.

지난 주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환율은 월요일에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1달러 당 58페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레몰로나는 이 하락을 경시하며 국가의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강조하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조치는 고려해야 할 많은 데이터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7]*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Cont. from page 6]

국제통화기금 주재 대표인 라그나르 구드문손은 BSP가 데이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동의하지만, 미 연준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BSP의 목표 범위 내에 다시 들어왔으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세는 격려받을 만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전망에는 상승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승 리스크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BSP의 목표 범위 내에 확실히 안정적으로 들어서기 전까지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 입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5/28/business/top-business/inflation-not-seen-breaching-target/1948748>

KCCP ACTIVITY HIGHLIGHTS

2024 아시아 플랫 | 아시아 태평양 상공회의소 (APCAC)

May 22-24, 2024 | Bangkok, Thailand



KCCP 회장인 Hyunchong Joseph Um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상공회의소(APCAC)의 2024 아시아 플랫에 참석했습니다.

2024 아시아 플랫은 글로벌 스타트업 해외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는 논의된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 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전략
- 아세안 국가 간 스타트업 기업들 간의 교류 전략
- 아세안 시장 확장을 위한 스타트업 투자 전략에 관한 토론
- 한국-아세안 기업가협회의 비전 발표

해당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다른 한국상공회의소장들도 참석했습니다.



KCCP ACTIVITY HIGHLIGHTS**제 6회 ARTA 상태 발표**

May 24, 2024 | Manila Hotel



안티 레드 테이프 당국(ARTA)은 2018년의 비즈니스 수행 용이성과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제11032호, 일명 2018년 비즈니스 수행 용이성 및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자신의 6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2024년 5월 24일에 제 6회 ARTA 상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이상화 대사도 참석하였고 KCCP는 HJ Shipping and Construction Co., Ltd의 사장 겸 총괄 이사인 전국일 씨를 통해 참석하였으며, 또한 인더스트리얼뱅크 오브 코리아 마닐라 지점의 정희석 씨와 필리핀 한국기업협회 회장인 정희석 씨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ARTA는 이 이벤트를 통해 이들의 이루어진 성과와 목표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필리핀 글로벌 경쟁력 대시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글로벌 순위와 아세안 특정 시계열 데이터에 중점을 두어 5년간의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22일 KCCP 연말 파티에서, KCCP는 ARTA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사결정문(MOU)을 체결했습니다.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Lotte Corporation is the largest shareholder of Pepsi Cola Products Philippines Inc.